도교육청, 위기학생 ·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 · 심리적 어려움 겪는 학생 증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들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도 집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시간 이상, 교원은 연간 4시간 이상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한다.

마음치유, 생명지킴 운영 학교(초·중·고·특수학교 등) 70개교를 선정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기학생 예방 위한 연극 프로그램과 원예치료, 교우관계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학교당 최대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학급다모임, 청소년 놀이공간 등을 활용한 안전하고 즐거운 또래문화 조성과 학교 교육 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학교상담실과 위(Wee)센터, 도교육청 병원형 위센터를 통해 '상담-진단-치료'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원광대병원에 이어 전북대병원이 병원형 위(Wee)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도교육청 위기지원단과 위기지원대책자문위원회는 계속적으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신과 전문의, 전문상담교사 등이 참여해 가정, 환경, 개인 등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병원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생, 학부모는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가 '전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를 통해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예방, 상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 내실화를 기해 학생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우고 생명존중 인식을 제고해 예방·진단·치료까지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예비후보 "지역사회 협력 통해 교육 대전환 이룰 것"

교육청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공동협력 체제 구축 방안 발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를 통한 통합적 교육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정책 공동협력 시스템인 '(가칭)교육협력공공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칭)교육협력공공회의는 교육청과 광역·기초 지자체, 정치권(지방의회, 국회), 지역 공공기관 등이 교육관련 정책, 예산의 긴밀한 협력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상설 시스템이다.

서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별로 분산되고 중첩된 교육정책을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먹거리와 안전, 폐교활용, 평생교육, 방과후 학교, 돌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각 협력기관과의 사전·사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를 상시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지역사회협력담당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 관련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또 폐교를 지역특화 체험관, 학생캠핑장, 마을공동체복합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시·군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전문적인 특성화 학습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 예비후보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은 옛말이 아니다"면서 "전북의 아이들을 도민이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전국 국립·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

공신연, 청렴대상 시상 관련 성명서 발표

"서거석 교육감 후보, 청렴대상 교육부문 적격 선정 천 후보, 청렴대상 관련 기자회견 즉각 공개사과해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예비후보가 우리단체에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를 크게 훼손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신연은 2019년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2021년 4월 19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1호로 지정을 받아 설립, 전국 23개 광역시·도본부와 100개 시·군·구지부,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공신연은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다.

공신연에서는 지난 1월 20일 서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제2회 대한민국청렴대상을 시상한 바 있는데, 이는 전국광역시도와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심사위원회 위원 4명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선정했다고 했다.

교육부문 수상자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의 경우 경북교육청 후보자와 경합, 5개 항목(청렴공적평가, 반부패청렴활동, 교육관련 정책 중 반부패공약, 청소년 돕기 봉사활동, 사생활청렴실천여부)에서 4명 심사위원의 포상평점표를 산출해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신연은 천호성 후보에게 지난 24일 언론에 배포한 우리단체 성명서에 대한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공신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시군 단체장, 교육감, 광역시·도·군 의원들의 능력과 청렴성 등을 사전 검증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헌법상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도와드릴 예정이다"며 "특히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예비후보가 우리단체에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를 크게 훼손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제2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자들의 모습이다.

전북교육청,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 운영

내달 5일부터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가족의 꿈과 사랑을 키우기 위한 '2022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계획'을 마련,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교육은 자녀 양육에 부모가 함께 참여해 올바른 양육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쌓아간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4월 딸기체험을 시작으로 11월 도자기체험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첫 교육은 오는 4월 16일 전주레인보우팜에서 '딸기체험'으로 진행된다. 도내 유·초·중학교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딸기마을 생태교육, 딸기 수확체험, 나만의 반려식물 딸기 심기 등의 활동으로 꾸며진다. 교육 참여 신청은 4월 5일부터 도교육청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어 5월에는 완주대승한지마을에서 '한지체험'이, 6월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생태체험'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도 가족교육은 계속된다. 7월에는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MBTI'를 통해 가족 간 서로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교육이 마련됐다.

8월에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과 함께하는 '기후체험', 9월 '반딧불이체험(고창운곡습지)', 10월 '장류체험(순창장류체험관)', 11월 '도자기체험(김제벽골제 및 토광요)'이 각각 준비돼 있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교육은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라면서 "가족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서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감,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해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위한 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청렴도 꼴찌를 청렴대상으로 둔갑, 셀프수상 의혹 제기 대상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도민 앞에 사과해야" 주장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청렴도 꼴찌를 청렴대상으로 둔갑시킨 서거석 전 총장은 도민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서 전 총장은 지난 1월, 2015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대를 '계약분야 청렴도 전국 1위에 올린 공로' 등으로 대한민국 청렴대상을 수상했다고 sns나 블로그, 홍보물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 전 총장이 수상의 근거로 밝힌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대는 평가대상 36개 대학 중 36위, 최하위였다는 것이다. 비록 20% 비중인 계약분야 청렴도 1위는 맞지만, 80% 비중인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는 꼴찌를 했고, 이 둘을 합산한 종합청렴도에서도 꼴찌라는 입장이다.

결국 서 후보는 청렴도 꼴찌를 청렴대상으로 둔갑시켜 대한민국 청렴대상을 수상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서 전 총장은 7년 전 실적을 갖고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7년이나 지난 내용을 포장해서 상을 받는 셀프수상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은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해야 한다"며 "청렴도 꼴찌를 1위로 둔갑시켜 청렴대상을 셀프수상하고, 이에 대한 해명 없이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서 후보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배종향 교수 신임 한국원예학회 회장 선출

원광대학교는 배종향(원예산업학과) 교수가 (사)한국원예학회 제45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배종향 교수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1년 동안 차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배 교수는 학회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한편 국내외 학회 간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SCI급 발행 학회지 HEB(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와 HST(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은 첨단지식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계열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관련 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미래 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원예학회는 지난 1963년 창립돼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농학 계열 최대 학회다.

/뉴시스

천호성 예비후보,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약속

교육공무직 전북지부와 정책 협약…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천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 '학교 공공성·교육복지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학교 공공성 및 교육복지 강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교육의 요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협약 내용을 교육감이 돼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후보는"학교는 과거와 달리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교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존중한다"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47개 직종에 약 7천여 명이다. 방과후교사와 예술강사 등 시간제 강사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2,000명이 넘는다.

오는 6월 1일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현재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마음을 채우는 끌림의 인문학' 운영

내달부터 11월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지역사회 내 인문 가치를 공유하고 인문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마음을 채우는 끌림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을 채우는 끌림의 인문학'은 4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후 총 16회 진행되며, 주제 분야별로 저명한 강사 또는 작가를 초청해 깊이 있는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매 회 '트라이앵글' 청년 봉사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공감 인문학' 6개, '가족애(愛) 인문학' 4개, '포스트 코로나 인문학' 6개 등 총 16개 주제의 다양한 강연으로 준비해 지역주민들에게 교양과 인문 감수성 함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음을 채우는 끌림의 인문학'은 매회 3주 전에 우리 회관 누리집(https://lib.jjc.go.kr/jjc)을 통해 사전 접수한다. 특히 4월 16일 예정된 '공감 인문학 - 우리는 누구나 공감을 원한다'의 1회 강연은 오는 30일부터 우리 회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광휘 관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 역량을 기르고 본질적인 가치인 사람과 삶, 그 근원에 집중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강연이 주민들이 공감하고 성장하는 인문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도자봉센터, 지역공동체 봉사동아리 지원 공모 신청접수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 이하 센터)는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지역공동체 봉사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4월 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 기획 및 단체의 고유사업에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다양한 자원봉사 동아리를 발굴 육성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비영리단체, 일반, 재능 봉사동아리 등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동아리는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총 44개의 봉사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전자 메일(volo-1365@daum.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2022년도 지역공동체 봉사동아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